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⑤ 강남대 이 찬 수 교수 (종교문화연구원 원장)



“신학자 존 칼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불교신자가 아미타에서 배운 것을 연구함으로써 그리스도에 관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불교 신자도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배운 것을 연구함으로써 아미타에 관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궁극적 진리를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체형은 세계관과 그 표현 방식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서로 비슷한 깊이를 지닙니다.”

이찬수 교수의 ‘불교와 기독교가 만나는 자리’ 6번째 강좌가 4월 24일 ‘그리스도의 몸과 보신불’을 주제로 진행됐다. 이찬수 교수는 강의에서 “붓다나 예수는 몸의 욕구가 충족되지 못하는 데서 오는 괴로움의 극복이 종교적 깨달음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 불만족스럽고 제한된 몸의 차원을 넘어 존재 차원에서 재조명됐고, 더 나아가 중생의 구체적인 구원 욕구에 부응하는 초월적 존재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강의는 서울 서교동 서교빌딩 대안연구공동체에서 매주 월요일 오후 7시 30분에 열린다. 정리=이성인 기자



# 예수-그리스도와 보신불, 몸에서 정신으로 전개 같아

### ◆신앙적 깊이의 상통성

예수나 붓다나 모두 육체를 지니고 살았습니다. 그리스도나 보신불의 몸은 근원적 괴로움의 초월자로서 재조명된 몸입니다.

대표적인 보신불이 아미타불입니다. 보신불이란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살이 서원하고 수행한 결과 얻은 초자연적인 몸, 원(願)으로 인해 받은 보신물입니다. 아미타불은 법장 보살이 원을 세우고 수행해 깨달음에 도달한 붓다입니다. 지옥으로 간 예수와 지장보살 신앙도 마찬가지로 신앙적 구조를 반영합니다.

가톨릭이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1500년 동안 세계 교회의 대표적인 신앙 고백문 사도신경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Hell)에 가셨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에서는 예수가 “저승·지옥(descended into Hell)에 가셨다”는 구절을 언젠가 술책 빼 버렸습니니다. 하지만 천주교회에서는 여전히 이 구절을 담아 신앙고백을 합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뒤 땅에 묻혔고 저승, 즉 지옥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께서는 간헐하는 영혼들에게도 가셔서 기쁜 소식을 선포했습니다”라는 한 전승이 잘 설명해줍니다.

“간헐하는 영혼들”이란 “노아가 방주를 만들었을 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렸지만 끝내 순종하지 않던 자들”로 구원의 기회를 놓쳤다고 간주되는 이들입니다. 대홍수 때 노아의 식구들만 구원받았고, 다른 이들은 저주받아 영원히 죽어버렸다는 일반 상식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예수는 그들을 영원한 죄인으로 두지 않았고, 그들을 지옥에 남겨두고자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

이 전해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러한 예수의 모습은 지옥을 포함해 육도 중생을 다 구원하기 전까지는 정각을 이루지 않겠다고 서원한 지장보살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모두 역사적 존재에 의해 알려진 초월적 세계가 중생 구원의 요구에 따라 다양하게 전개된 초형상적 구원자들의 모습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을 염하는 불자들의 신앙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그리스도인의 신앙, 구원의 가능성을 지옥에까지 열어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지장보살의 서원에 대한 불자들의 신앙은 인간 구원 열망의 다양한 표현 형식으로 읽혀 집니다.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고타마 싯달타에서 보신불로, 구체적 몸에서 영적·정신적 몸의 차원으로 전개돼 나간 두 종교전통의 역사는 인간의 종교적 심성의 구조적 유사성과 함께 신앙적 깊이의 상통성을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구원의 표현 방식은 전통의 깊이 혹은 그 전통 안에서 발생한 신앙 체계의 깊이에 유사성이 있습니다.

### ◆하느님-예수, 법-붓다

예수는 철저히 신을 믿고 의지하며 그 뜻대로 살아가 했습니다. 스스로를 신의 차원까지 높이려고 하지 않았습니니다. 예수 사후 제자들은 “일찍이 아무도 하느님을 보지 못했다. 아버지의 품안에 계시는 외아들 하느님이신 분이 알려주셨다” (요한복음)며 예수를 하느님의 ‘외아들’로 불렀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를 통해 하느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후 마태복음에는 “나의 아버지께서는 나게 모든 것을 넘겨주셨다”로 요한복

음에는 “나를 본 사람은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고 전승하게 됩니다.

고타마 싯달타 역시 수행과 명상을 통해 인생의 원리, 세상 돌아가는 이치 ‘법’(法, dharma) 를 깨닫고 49년 간 가르침을 설파합니다. 부처님은 “자기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自燈明 法燈明)” “내가 열반하더라도 법신은 영원히 멸하지 않는다”며 율(律)과 법(法)을 스승으로 삼을 것을 가르칩니다. 붓다 자신을 신격화하거나 숭배의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지만 제자들은 그가 가르친 법이 그의 인격을 통해 드러났다고 믿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를 하나님의 말씀의 구체화로 붓다를 법의 구체화로 받들게 됩니다.

하지만 고타마 싯달타가 죽은 이후 법신의 의미는 변했습니다. 붓다의 모습에 대한 기억과 연상 속에서 붓다의 육체적 흔적 즉 유골(사리 śarīra)과 같은 구체적 사물을 숭배하는 탑들이 신앙이 발전합니다. 탑들이를 통해 붓다를 기억하며 그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붓다는 경계하였으나 사람들은 법신 차체보다는 법신을 알려준 붓다를 그 법신의 구체화(化身, mīrmanākaya)로 알고 숭배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는 역사적 존재인 석가모니 숭배나 그 유골을 숭배하는 탑들이 신앙에 대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부처는 역사적·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지혜(智慧, 般若)라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몸 숭배에 대한 비판적 언설이 등장했다는 것은 육체적 흔적에 집착하는 불탑 신앙, 구체성에 집착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붓다 사후 가르친 법 자체가 인격화 됩니다. 붓다가 영원한 법의 구현자이듯, 초월적 형상을 지닌 붓다가 여럿 있었음은 물론 지금도 서방의 깨끗한 땅에 초형상적 붓다인 아미타불, 약사불, 아촉불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 ◆붓다의 몸·그리스도의 몸

중생은 몸을 불변하는 실체처럼 여기고 그 욕구에 집착합니다. 이것을 신견(身見)이라고 합니다. 신견을 극복한 세계가 수행을 통해 견성(見性), 열반을 뜻합니다. 근원에 대한 집착이 제거될 때 진여를 보게

## 예수도 저승·지옥 찾아서 죄인 구제했다

### 부활은 두려움 극복하고 진리 펼치는 용기

“말씀이 육신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거처하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요한복음)보편적이고 영원한 하느님의 말씀, 법을 역사적 존재인 예수에게서 보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서 세상을 다 시 보게 된 제자들 중 일부는 예수야말로 본래 영원한 하느님의 모습을 지닌 분이셨는데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가 본래 위치만큼 들어 올려지셨다는 예수 선재(先在) 신앙을 발생시킵니다.

“고타마 싯달타가 붓다가 된 것도 금세에 6년 고행이라기보다 8000번 생애를 거

되는데, 만물의 실상을 제대로 본 근원적인 주체가 바로 법신(法身)입니다. 법신은 구체적 존재인 붓다의 깨달음과 그 깨달음에 근거한 구체적 가르침들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본 요소들의 집합과 같습니다.

법신을 구체적으로 드러낸 것이 색신(色身)입니다. 색신과 법신을 총칭해 불신(佛身)이라고 부릅니다. 법신이라는 말은 붓다 생존 당시에는 붓다가 가르쳐주고 보여준 법이 붓다에게서 다 드러났기 때문에 순수한 근본요소들의 총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하지만 고타마 싯달타가 죽은 이후 법신의 의미는 변했습니다. 붓다의 모습에 대한 기억과 연상 속에서 붓다의 육체적 흔적 즉 유골(사리 śarīra)과 같은 구체적 사물을 숭배하는 탑들이 신앙이 발전합니다. 탑들이를 통해 붓다를 기억하며 그의 깨달음 속으로 들어가고자 했습니다. 붓다는 경계하였으나 사람들은 법신 차체보다는 법신을 알려준 붓다를 그 법신의 구체화(化身, mīrmanākaya)로 알고 숭배했습니다.

초기 대승경전인 (반야경)에서는 역사적 존재인 석가모니 숭배나 그 유골을 숭배하는 탑들이 신앙에 대한 비판이 등장합니다. 진정한 부처는 역사적·생물학적인 몸이 아니라 지혜(智慧, 般若)라는 것입니다.

대승불교에서 몸 숭배에 대한 비판적 언설이 등장했다는 것은 육체적 흔적에 집착하는 불탑 신앙, 구체성에 집착했음을 보여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역사적으로 붓다 사후 가르친 법 자체가 인격화 됩니다. 붓다가 영원한 법의 구현자이듯, 초월적 형상을 지닌 붓다가 여럿 있었음은 물론 지금도 서방의 깨끗한 땅에 초형상적 붓다인 아미타불, 약사불, 아촉불이 있다는 사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부활은 일반 대중이 생각하는 육신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의 부활과 관련해 전개된 성서의 역사 속에서도 예수의 몸에 대한 집착을 벗어나는 쪽으로 전개됩니다. 부활은 오랜 생활에 걸쳐 실제 죽음에 그치지 않고 끝없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진리를 전개하는 용기로 작용합니다.

서기 50년경부터는 ‘God raised up’ 이라고 부활에 대한 증언을 합니다. 부활의 주체는 예수가 아니라 신입니다. 하느님이 신의 뜻을 온전하게 온 몸으로 실현하는

삶을 산 예수를 죽지 않게 했을 것이라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여전히 제자들로부터 영향을 끼치는 예수는 죽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더 넓은 근원적 범주에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을 요청하는 살아있는 실재로 작용한다는 공감대가 “신께서 그를 일으키셨다”는 말로 나타납니다. 예수의 몸은 만져볼 수는 없지만 그 이상의 힘이 작용하는 ‘영적인 몸’이 됩니다. 기독교인의 종말적 소망은 이와 같은 영적인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민중은 신을 구체적 사유를 통해 바라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진리는 역사적 구체성 안에 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하려 했지만, 예수를 보지 못한 사람들은 예수의 육체성에 집착합니다. 신께서 예수의 구체적 몸을 일으킨 것이라고 상상하는 거죠. (요한복음)에서는 “당신은 나를 보고서야 믿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이들이 복 됩니다”라며 진정한 부활은 육체적 차원을 넘어선다는 영적인 보편성을 부각합니다.

나중에 상상되고 신봉되는 예수의 몸은 예수를 본래 하느님의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이상적인 분, 초월적 그리스도 차원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미 죽었으나 추종자들에게 여전히 현존하는 예수, 그가 부활의 그리스도입니다. 초월적 그리스도 예수에게도 형상의 몸, ‘영적인 몸’이 있습니다. 그 몸은 신에 의해 높여져 영적차원이지만 그렇다고 생물학적인 몸과 전적으로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에 따르면 썩을 것이 부러져서 영적인 몸으로 재탄생합니다. 하느님이 썩을 것을 썩지 않게 할 것으로 변화시켜준다고 믿었습니다.

www.paideia21.org (02)777-0616

**부처님의 가피와 영험이 가장 많은 법화경 사경 및 독송!**

**행복을 부르는 법화경 사경 (한글·한문)**  
 해조 역 | 사륙배판 | 전7권 | 전체 1,760쪽 | 65,000원

**우리말 법화경 사경**  
 해조 역 | 사륙배판 | 전5권 | 전체 940쪽 | 40,000원

**독송용 우리말 법화경**  
 해조 역 | 국판양장 | 630쪽 | 18,000원

**INDIA**  
**한권으로 만나는 인도**

불교가 탄생한 나라, 한권으로 정리된 인도 이해의 길잡이!  
 인류 정신문명의 요람, 종교와 신화의 보물창고, 방대하고 복잡한 역사를 가진 인도 사회에 대한 간결하고 핵심적인 안내서!

이병욱 지음 | 신국판 | 310쪽 | 값 13,000원

**지관좌선법을 간결하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모든 수행자들의 교과서!**

천태대사의 '수습지관좌선법'을 알기 쉬운 현대어로 번역하고, 상세한 주를 덧붙여 원문을 더욱 쉽고 풍부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천태소지관**

“불교는 수행을 통해 일반을 증득하기 위한 방법이며, 그 방법은 지와 관을 벗어 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도를 닦으려는 자는 반드시 지관을 수행해야 한다!”

천태 지자대사 지 | 윤현로 역주 | 국판양장 | 276쪽 | 값 13,000원